

# 나를 의식하지 않으면 17세로 변화돼

## 도통하는 비결: 나를 의식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말하는 마음 법만 지키면 병이 걸리려야 걸릴 수가 없고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죄를 완전히 해결하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죄라는 것은 나예요. 그래서 나만 의식 안 하면 죄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나를 의식하지 않으면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의식하는 사람에게만 병이 있는 겁니다. 나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병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는 말은 무아경지에 이르러야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의식이 죄가 되기 때문에 나라는 의식만 의식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 없어요. 나라는 것이 있어야 죽을 것이 있지. 그래 안 그래요? 나라는 의식이 원죄이며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나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는 의식만 없으면 완전히 도통했다가 되고 하나님에 되었다가 되는 겁니다.

나를 없애라고 하니 나라는 것을 그냥 없애려니 뿌리째 뽑아서 제거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생각만 안 하면 없어져. 나라는 것을 의식만 안 하면 그것이 어디가 설 땅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밀실에서 도통했다 도통했다 하는데 뭘 도통한 줄 아세요? 나를 의식하지 않는 그 선에 올라간 겁니다. 나를 조금도 의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도통하는 비결이고 하나님 되는 비결입니다.

다. 아시겠습니까?

## 나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종교집단

그래서 나라는 의식이 있는 그러한 집단은 종교가 아닙니다. 나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없어야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라는 의식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는 고로 그런고로 하나님이 모이는 집단이 종교 집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말하는 종교 집단이 없다는 말은 바로 종교라는 것은 바로 무아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종교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랬던 겁니다.

이 사람이 밀실 안에서 연단 받을 때에 이렇게 해봐도 이제 그대로 쫓다로 떨어지고 저렇게 해봐도 쫓다로 떨어지고 아무리 이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밤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 했다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암만 기도를 하고, 나라는 것이 암만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로 떨어지니까 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원수의 입장에서 있는 마귀로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해와 이긴자 큰아들이 주먹 따귀를 때렸을 때에 이 사람이 '이러한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맞았다고 의식을 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라는 것은 없고 하나



구세주 조희성님

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를 때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때린 것이므로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된 겁니다. 이긴자가 오래 참아서 이긴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실지로 마귀인 나라는 의식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되는 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학문도 없다고 했던 겁니다. 마귀가 알고 있는 학문은 그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마귀의 학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 안에 학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 안에 종교가 있는 겁니다.

## 앞으로 17세로 변해

이 사람은 말을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에 의해서 진리 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틀림없는 구세주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들어보니까 구세주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 승리제단이라는 데는 바로 의인을 키우는 장소요, 여기는 바로 하나님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나라는 의식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나를 의식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나를 의식하는 것은 마귀한테 쫓다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다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이겼고 하나님은 쫓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나님이 이겼다가 되고 바로 죄인이 하나님으로 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지 않으면 결단코 영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어느 목사가 이런 설교하는 사람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견 하나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의식하지 않으면 병도 안 걸려. 내 몸이 조금 허약하다고 해서 병이 있지 않냐 하고 의심을 하고 진찰을 해보면 없는 병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라는 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나라는 의식이 마귀이고로 마귀가 있을 때에 몸에 병이 드는 거지 나라는 것이 없어지면 몸에 병이 안 듭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나라는 것이 있어야 늙는 거지 나라는 것이 없으면 늙지도 안 생겨. 그냥 늙어.

그래서 여자들은 아주 예쁜 색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집간다고 그럴까 봐 나는 걱정이 돼요. 결혼하면 죽어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나를 의식하지 않으면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5백 살 먹어도 나이가 5백 살인지 15살인지 모를 정도로 되는 겁니다. 옛날에 영모님이 그때가 되면 17살이 된다고 그랬죠? 17살로 변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영모님 사람이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영모님 속

에 있는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7살로 변합니다. 남자들도 몸이 17살 변하면 몸이 둔하지 않고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점점 젊어질 때에 비로소 구세주의 말이 진리의 말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웃으면 피가 맑아져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늘 웃었다고 했죠? 웃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뻐하는 웃음의 마음이 옛날에는 하나님 마음인줄 몰랐는지? 웃으면 사람의 피가 맑아져요. 피가 맑아지고 핏속에 생명자가 들어갑니다. 생명자가 들어가서 생명자가 자꾸 숫자가 늘어난다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젊어집니다. 웃고 나면 몸이 가벼워져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피의 작용입니다. 웃는 마음을 가지면 피가 맑아집니다. 대개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핏속에 혈전 같은 것이 생깁니다. 혈전 같은 것이 생기면 혈관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집니다. 웃으면 자연스럽게 혈전이 없어집니다. 혈전이 없어지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한바탕 웃고 나서 혈압을 재어 보세요. 내려 갔나. 안 내려 갔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많은 의사 중 의사가 이 사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웃어야 돼요? 잠깐만 웃어야 돼요? 항상 웃어야죠? 그래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제단 식구 가운데에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대로 만날 웃으면 안 죽게 되어 있어요.\*

2003년 1월 3일 말씀 중에서

##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 수혈과 헌혈의 영적 의미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뇌를 통하여 피가 흐르기 때문이다. 피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마음(피血)이라는 최초의 소스가 뇌로 들어가 생각으로 구체화되고 증폭되는 것이다. 어떠한 마음을 뇌를 통해 구체화하고 증폭하면 그것이 곧 '생각의 물질'로 방사되는 것이다. 이 생각의 물질을 소위 기(氣), 사념(思念), 오-라(氣), 파동 입자라고 현대 물리학에서 밝힌바 있다.

예를 들어 생선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고, 꽃에서는 꽃 고유의 향기가 나며, 소나무에는 소나무만의 고유한 냄새를 풍긴다. 뿐만 아니라 쇠에서는 쇠 냄새가 나며, 흙에서는 흙냄새가 난다. 각기 물질로부터 물질 분자가 붕괴되어 떨어져 나오면서 그 입자(파동)가 후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서도 그 고유의 사람 냄새가 나오는데, 이를 '생각(의식)의 물질'이 방사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 냄새가 풍겨져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단지 마음과 생각의 작용만으로도 그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냄새'는 어떻게

나는 것일까?

## 냄새란 입자 오-라(AURA) 파동 정보와 같은 의미

냄새의 정체는 곧 그 물질의 고유의 에너지(기:氣)가 방사되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이 에너지는 양자물리학에서 밝혀낸 것으로 빛이고 입자이면서 파동을 일컫는다. 이 생각의 물질을 오-라 또는 사념파(思念波)라고도 한다. 이처럼 사람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생각의 물질은 일종의 빛(오-라)인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대로 그 빛깔과 모양이 다르다.

실상, 모든 살아 있는 존재는 각자의 고유의 '오-라' 빛을 내고 있다. 비록 오-라가 나오고 있지만,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차원의 의식 수준에 머무른 사람이나 특별한 오-라 투시(영능력자)들이나 사람의 몸 주위에 구름 같은 빛을 내는 에너지장이 보인다고 말한다. 인체 에너지장을 보고 빛의 선명도 색 농도, 색깔, 분포, 모양을 분별하여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마음상태 병의 징후 발병 등을 알아맞출 수 있다. 투시자들은 능력에 따라 상대방 사람이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또 과거의 인생사와 미래의 일까지도 훤히 내다본다고

# 생각의 물질

한다.

오랜 옛날부터 어느 한 차원에 오른 사람(영능력자)은 이러한 오-라를 일찍부터 보아왔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최초로 밝힌 사람은 1908년에 런던의 성 토마스 병원의 월터 키르나 박사에 의해서다.

국내에서는 1987년 부산 동의대 이상명, 유윤식 교수팀이 나뭇잎으로 오-라 사진을 찍는데 성공했고, 또한 오-라 사진기가 개발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재)한국인체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오라캠'이다. 사람들의 생체에너지를 별도의 현상이나 인화과정 없이 PC모니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 획기적인 오-라 촬영기라 할 수 있다.

오-라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그 색깔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성질 역시 달라진다. 즉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몸에서는 생명을 해치는 독소물질이 발생되고, 선한 마음을 품으면 생명을 이롭게 하는 생명의 물질이 발생된다. 옛날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바른 마음' '바른생활'을 강조하신 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실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과 생각이 주변 환경 및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그 영향을 상호 주고받는다는 과학

적 근거가 근거에 깔린 가르침이다.

## 생각에 따라 오-라 색깔이 바뀐다

사람이 매순간을 살아가면서 품는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계속해서 오-라가 방출되고 있다. 이를 흔히들 '기미를 알아 차리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등은 바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항상 오-라를 감응하고 있다는 보편적 사실을 나타낸다. 오-라는 바로 몸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의식 파동 에너지 정보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과학적 매개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오-라를 관찰하는 장치를 통해 볼 때, 두 사람이 서로 접근하여 오-라가 서로 간섭하게 되는데 한 마디의 말도 교환하지 않더라도 오-라 색채의 변화가 온다. 이럴 때, 흔히 분위기를 느낀다고 하는데 '좋다' '나쁘다' '결코럽다' 라는 표현을 쓴다. 이러한 오-라를 색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서로 다른 오-라 색이 서로 부딪치는 것이고, 똑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각도로 파동이라는 입장에서 설명하면 서로 간의 마음과 생각의 주파수가 서로 맞지 못해서 공명하지 못하고 부딪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신체접촉(skinship)



을 하지 않더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장 오-라 파동 입자를 통하여 보이지 않게 항상 긴밀하게 교감하고 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이 돌아가는 것을 오-라는 차원을 통해 본다면, 생각을 따라 오-라 색깔이 변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이것에 관한 흥미진진한 예가 있다.

-저 유명한 미국의 영능력자 에드가 케이스는 어릴 때부터 오-라가 보이는 특이능력자였다. 그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언제나 청색 계통의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그가 베타 이를 사라 갔을 때 그 사람이 적갈색이나 짙은 홍색, 주홍색 계통의 것을 차려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색채 선택의 경향은 몇 해나 계속되었다. 그 동안 그 사람은 신경질적으로 되어 있었고, 언제나 피곤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그리하여 끝내는 신경쇠약으로 몸져 누운 상태였다.

그 동안 에드가 케이스가 보고 있었던 그 사람의 오-라의 색채는 그가 적색 계통을 좋아하게 되고부터는 오-라 속에 점차 적색이 증가하고 마지막에는 질현의 색인 회색이 혼합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병이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을 때, 이들의 색채는 사라지고 본래의 청색이 나타남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택하는 색도 청색 계통으로 되돌아갔다.

이와 같이 색채의 기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의하여 자신과 동일시되는 오-라색과 같은 색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이미지와 색채 호흡'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신체 주위의 오-라의 이미지를 떠올림과 동시에 아름다운 빛이 반사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오-라의 색채를 바꾸고, 그것으로 인해 긍정적인 마음과 생활패턴의 변화까지도 유도하는 명상법인 것이다.\*

김주호 기자